

# 개별단체 '자율성 보장' 새 쟁점

## 조계종 신도회 활성화 세미나

조계종총무원원은 내년 초파일 전까지 중앙신도회를 창립한다는 목표로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5일 현재 8개 교구신도회가 구성되었으며, 늦어도 올해 안에 15개 교구신도회를 구성해 중앙신도회 창립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이후 직장·직능 및 개별신도단체의 가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조계종 각급신도회 구성추진실무단(단장 해항·총무부장)이 주최한 '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종단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조계종 신도조직의 결성 원칙과 방향'(박희승·추진실무단 실무위원) '금강정사 신도회 현황과 활동사례'(이종현·금강정사 사무장) '신행단체의 결집방향과 과제'(최연·재가불자연합 집행위원장)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신도회 구성 경과를 알리고 신도단체들의

신도단체들의 자율성보장을 위한 신도법 개정. 현행 신도법에 따르면 개별신도단체들은 모두 말사에, 지역조직은 교구본사에 소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지스님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다. 10개 지부 이상의 전국조직은 중앙신도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신도단체 대표자들은 한결같이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나아가 중앙신도회가 왜 필요하고, 개별신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무엇이나



◇지난 30일 조계종 각급 신도회 구성추진실무단이 주최해 열린 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별신도단체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종단체제에 편입시키느냐가 새로운 과제로 제기됐다.

## 현행신도법 개정요구에 추진단 '不可' 입장 중앙신도회 이탈땀 불자 역량 분산될 수도

여론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계종 기획국장 황면수, 이모주 여성불교연합회 회장, 김재일 동산반야회장, 김동훈 경복련운영위원장, 이근식 삼보법회 회장, 조계사신도회 김재식 부회장, 정용정 대불청 사무총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세미나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개별

며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최연 재가불자연합 집행위원장은 '신행단체의 결집방향과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개별신도단체를 단위사찰로, 지역단위 신도단체는 교구에 준하는 단체로 인정하고 종단에서 인정하는 포교사를 지도법사로 임명하여 법회 및 조직이 관리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신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단체의 전통과 특수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신행단체 대표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에 대해 추진실무단은 신도법 개정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신도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얼마든지 개별신도단체의 자율성 보장과 중앙신

도회 참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와 같이 개별신도단체의 종단과 무관한 운영으로는 종단의 체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따라서 이후 개별 신도단체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더라도 조직의 체계성을 갖춘 중앙신도회 결성이 최대의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현행 신도법에 의해 개별단체의 사할등록이 강행된다면 조계종 중앙신도회로부터의 이탈 또는 형식적 사할등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불자들의 힘을 결집시키려는 중앙신도회 구성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도 예상된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김천 직지사서에서 개최한 전국본말사추진위원회에서 '신도조직 활성화 방안'과 '불교계 사찰환경보존대책'에 대한 강연이 펼쳐져 주목을 받았다. 도심교의 신화로 불리는 능인선원 주지 지광스님은 "현대 시스템, 조직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찰은 조직이 전무한 상태로 조직에 관한 관념도 제대로 확립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땅을 불국토로 만들기 위해 먼저 신도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광스님

들에게 혜택을 주는 적극적인 푸쉬전략(Push strategy)을 제시했다. 스님은 또 "외형적 신도들을 엄격히 제도화된 조직에 흡수해 실질적 개념의 신도로 전환시키는 조직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조직의 형태로 '중앙회-중간관리-실무조직'을 제안했다. 끝으로 스님은 "세계적인 조직경영학자 빌 크리치가 주장한 조직구축을 위한 네가지 수칙은 곧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상구

로 강연에 나선 이영경교수(동국대 조경학과)는 "불교환경훼손은 개발 등 외부주체에 의한 훼손뿐 아니라 각종불사에 따른 내부훼손도 무시할 수 없다"며 사찰에 의한 대표적인 환경훼손으로 산림파괴, 수질오염, 사할경관훼손을 들었다. 이교수는 내부훼손의 주요요인은 "불교자체가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자비를 바탕으로 하고 무소유적인 삶과 발우공양, 분소의 등의 친환경적 생활을 강조하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말했다. 또한 "봉토사 해인사 송광사대웅전의 소음도 주거지역 환경기준치인 50d(A)를 초과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청정한 수행공간은 옛말이 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찰환경훼손에 대한 대책으로 이교수는 사찰별로 "대기보전 및 소음대책으로 유류를 이용한 난방보다는 전기나 가스 등을 이용하고 사찰내 자동차 출입제한과 경건한 사찰참배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사찰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간이 정화시설 설치, 외방으로 음식찌꺼기 잘러내기, 쓰레기 퇴비화, 분노 정화 등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엽 기자

## "신도에 혜택주는 전략세우자"

### 조계종 본·말사 주지연수 '신도조직 활성화' 특강

### 사찰환경훼손 막기위해 '불교실천규범 사회화' 급선무

브리 하회증생'과 일치한다"며 이 수칙을 소개했다. △조직구성원 모두에게 나의 현재에 대해 투철한 파악을 하게 한다 △자신의 약점과 단점에 대한 보완을 하게 한다 △그 같은 과정을 통해 타독된 것을 주변에 전달한다 △그 주변인들의 마음 가운데 한 식구라는 공동체 의식의 불꽃을 당긴다. 이어 '사찰환경훼손과 불교대책'을 주제

하고, 불교적 가치관이 실천규범으로 사회화하지 못했으며 불교계에서조차 불교적 환경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봉토사 해인사 송광사등 주요 사찰 강수의 산성도가 평균 5.6pH를 넘고 있어 이미 사찰의 대기오염이 시작됐다"며 "국내 석조유물의 95%를 차지하는 사찰의 화강암류 석조문화재대책이 시급하다"고

을 이용하고 사찰내 자동차 출입제한과 경건한 사찰참배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사찰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간이 정화시설 설치, 외방으로 음식찌꺼기 잘러내기, 쓰레기 퇴비화, 분노 정화 등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엽 기자

## 시론 아버지의 유산

지금부터 30여년 전. 필자가 중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3월 어느 날에 수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버지의 급한 부탁을 받았다. 그때 아버지는 부산의 구덕산 자락 아래인 대신동 전차종점 부근에서 조그만 나전칠기 공방을 하고 계셨다. 교복을 입은 채로 공방으로 들어서던 나를 반갑게 맞으신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뽕집으로 들어 가셨다.

### 중년가장의 무거운 어깨

잡시 후, 탁자 위의 뽕들이 거의 다 없어질 때쯤에야 비로소 아버지는 심중의 이야기를 나지막한 음성으로 차근차근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준아! 이제 너도 중학생이 되었으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잘 새겨들도록 해라."

그날 아버지의 모습에서는 유순하고 자상하시던 충정도 출신의 평소 태도와는 사뭇 다른 엄숙한 분위기가 잔뜩 배어 있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조금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준아! 내가 알다시피 아버지는 열악이 몹시 높았다. 대전에 사시던 내 할아버지도 고혈압으로 쓰러져 많은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시지 않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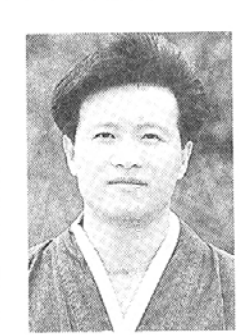
그렇다. 아버지는 고혈압으로 4년 전에도 한 번 쓰러져 중풍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나는 우리 집의 장남이니, 만약 아버지가 잘못되면 내가 나머지 식구들을 보살펴야 한다. 아버지가 매일 새벽마다 국민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어린 너를 데리고 구덕산 숲속에서 무술을 가르쳤던 것도, 장남인 너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였다."

나는 지난 7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아버지의 깃질손에 이끌려 아직 어음한 구덕산의 넓은 숲속에서 뛰고 굴러 전뽕무술을 열심히 수련해야 했었다. "그러니 내일부터는 학교가 끝나는 대로 아버지 공방에 나와서 나전칠기 기술을 배우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나는 그 다음날부터 방과후에 공방의 어두운 뒷방에 쫓겨 앉아 나전칠기를 배우게 되었다. 그로부터 1년후 여름. 그 무렵엔 열전 터위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주일 후에 아버지는 유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셨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느닷없는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왜냐하면 나전칠기 공방은 남의 빛을 얻어 꾸러나갔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는 재산을 커녕 오히려 많은 부채를 유산으로 상속받았기 때문이었다. 아수한 채권자들은 매일같이 우리 집으로 몰려와 전세방을 빼서라도 한시바삐 빚을 갚으라는 타박을 계속했다. 실상가상으로 나는 몸을 장터푸스에 걸려 아버지의 싸늘한 시신 옆에 파리한 모습으로 맥없이 누워 있어야 했다. 본래 지병이 있었던 어머니는 아버지의 표연한 죽음으로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고, 국민학교 4학년과 1학년인 두 남동생과 이저 겨우 두 살

박이던 막내 여동생은 겁에 잔뜩 질러 울부짖기만 했다. 초라한 장례식을 끝내고 간신히 정신을 추스린 나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아버지의 담부대로 식구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소년 가장이 되어야 했다. 거센 폭풍우가 쉬지않고 몰아치던 지난 30여년을 보내면서 돈 없는 설움에, 배고픈 설움에, 아버지 없는 설움에 눈물도 많이 흘렸다. 그러나 그 모진 세월동안 사회의 거센 타격 속에서도 흔들려 있지 않았고 나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물려주시는 빛나는 유산 덕분이다.

근면·건강·용기 '큰 재산'  
종말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는 근면성. 언제나 내 건강을 지켜준 전통 무술. 마음에 쌓인 세속의 흥진을 훌훌 털면서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해 준 등산. 마치 거대한 산처럼 내 앞길을 열려하고 지켜봐 주신 아버지로부터 나는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욱 귀중한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았다. 나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 유산들을 대물림하기 위해 오늘 새벽에도 아직 초등학교인 두 아이들의 손을 잡고 관악산을 오른다. 요즘 한국 중년가장들의 어깨가 더없이 무겁다. 그러나 나는 굳게 믿는다. 내가 그랬듯이, 이 아이들이 내가 물려주는 유산으로, 앞으로의 세상을 더욱 힘차게 헤쳐나갈 것을...



정준 <소설가>

불교TV가 완성한 한국불교의 대하 영상 파노라마

# 한국의 명찰

I 집 20개 사찰  
II 집 20개 사찰

역사가 있다. 문화가 있다. 법문이 있다.

한국의 명찰 I

낙산	보문사	안수산	무량사	수락산	홍곡사	덕숭산	수덕사
운악산	봉선사	호악산	금산사	태화산	마곡사	월송산	도감사
봉미산	신록사	도솔산	선운사	계룡산	동학사	두류산	대흥사
낙산	운주사	오대산	월정사	속리산	법주사	가리산	보림사
낙산	낙산사	천불산	운주사	백암산	백암사	지리산	실상사
설악산	신홍사	동리산	태안사	내장산	내장사	지리산	천은사
태백산	정암사	지리산	쌍계사	조계산	선암사	능가산	내소사
태조산	도리사	황악산	직지사	내연산	보경사	미륵산	용화사
천화산	표충사	함평산	기림사	영취산	홍곡사	팔공산	동화사
연화산	옥천사	소백산	부석사	천축산	불영사	한리산	관음사

한국의 명찰 II

한국의 명찰 III

불교TV 영상물은 인간의 맑은 차려질 11종의 향유가 그윽합니다.

불교TV 특급 다큐멘터리 시리즈 전5부

1. 출가 새로운 탄생
2. 명상포럼 내일사
3. 산중편지
4. 적멸보궁을 찾아
5. 산사의 향유

만들민화공양법회

구매방법: 100%전화주문  
불교TV 제휴 외환 VISA 카드 구입시 5%할인, 할부가능

btv  
지혜의 빛 자비의 샘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TEL: (02) 3272-0781 ~ 5